도교육청, 추경 4조9018억 편성

본예산 대비 2231억원 증액…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 에듀페이 도입 등에 중점

전북교육 예산 5조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일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2,231억원 증가한 4조9,018억원으로 편성해 4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949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253억원, 자체 수입 및 기타 148억원을 재원으로 하고, 부족한 세입재원 880억원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활용했다고 했다.

특히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사업,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전북에듀페이 지원 사업,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먼저,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을 위해 437억원을 투자한다. 본예산에 편성한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대상 768개교 3,105개 학급을 대상으로 스마트 칠판을 보급하고, 향후 2025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아우르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전북에듀페이에 172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비용 지원 1인당 입학지원금 30만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학습활동 지원 1인당 20만원, 학교 밖 청소년 500명의 학업복귀 지원 1인당 70만원의 학습지원비 등이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탐색과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진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전북에듀페이 사업은 2024년까지 전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번째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347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977억원, 급식시설 환경개선 225억원, 학교체육시설 개선 14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 외에도 공공요금 인상(4.2%) 및 학생수 변동을 고려해 학교기본운영비 57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초석을 다지고, 다양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향후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북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5월 26일 최종 확정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김창권 교수, 직업능력 연구원과 공동 학술세미나

전주대학교 김창권 교수(물류무역학과)는 (사)한독경상학회 회장으로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류장수 원장)과 공동으로 춘계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창권 교수는 "선진사례인 독일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이라도 직업교육 및 훈련을 병행해야 산업대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대학혁신사업으로 진행되는 글로컬 대학의 예시로서 독일의 미텔슈탄트대학교에 관한 심층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한독경상학회(kdgw.or.kr)는 한독간의 학술면 또는 문화면 등의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교류를 통해 한국에서의 경제·경영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3일 아동 양육시설인 삼성휴먼빌을 찾은 서거석 교육감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매 순간 최선 다해 미래 준비하길"

서거석 교육감, 어린이날 앞두고 아동 양육시설 방문

서거석 교육감은 제101회 어린이날 앞둔 3일 아동 양육시설인 삼성휴먼빌(원장 김인숙)을 찾았다.

이날 서 교육감의 방문은 가족들과 함께 어린이날을 보내지 못하는 시설 아이들에게 꿈을 잃지 말고 늘 웃으며 건강하게 잘 자라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의 꿈을 들은 서 교육감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면서 "미래는 꿈꾸는 사람의 것이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삼성휴먼빌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정 해체 등으로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아동 보육시설이다. 현재 30여 명의 학생이 생활하며 자신들의 꿈을 키우고 있다. /장은성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일 무주군을 방문해 관내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내 전 지역 학부모교육 진행 방안 적극 검토"

서거석 교육감, 무주 학부모 · 교직원들과 정책 간담회

농촌유학센터 관련 "무주군서 마련해준다면 협업 가능"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일 무주군을 방문해 관내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학부모와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승기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서거석 교육감은 △작은학교 살리기 △기초학력 책임제 △미래교육 환경 구축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등 10대 핵심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펼친 뒤, 학부모·교직원들과 교육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한 학부모는 "학부모교육이 대부분 전주와 군산, 익산에서 진행되고 있어 무주 학부모들은 참석이 어렵다"면서 "무주에서도 자주 학부모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예체능 교육 확대, 유치원 놀이터 안전 펜스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방과후학교 버스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서 교육감은 "현재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면서 "향후 도내 전 지역에서 학부모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촌유학 활성화와 정주 여건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무주군에서 농촌유학센터를 마련해준다면 교육청과의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여러 학교를 묶어서라도 아이들 인원을 맞출 수 있다면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등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머니 배구단이나 합창단 등 학부모동아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간호학과, 보건교사 양성과정 신설 교육부 승인

전주대학교 간호학과가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교원양성 과정 신설을 승인받았다.

이에 전주대 간호학과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교원자격검정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교사 자격증(2급 정교사)을 발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추가 운영하게 된다.

보건교사 2급 자격은 간호학과 교육과정과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간호사 면허와 함께 자동 발급된다.

3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교원양성 과정 승인과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학령인구의 건강증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은 학과장은 "전주대 간호학과만의 체계적인 교직과정 이수 프로그램 운영과, 졸업 후 보건교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2022년 10명과 2023년 11명이 각각 증원됐고, 최근 교육부로부터 2024년 입학정원 10명 증원이 추가로 승인됐다. /장은성 기자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등에 적용 가능

100% 자기강화복합재료 개발

전북대 김성륜 교수 등

전북대학교 김성륜 교수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파솔루션융합연구단 김재우 박사, 한양대학교 김성훈 교수와 함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등에 적용 가능한 100% 자기강화복합재료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자기강화복합재료의 제조공정에서 유동성 및 함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화재 혹은 기지재에 화학적으로 다른 성분을 혼합해왔기 때문에 물성과 제활용 가능성 모두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공동연구팀은 4축 압출 공정을 통해 폴리프로필렌 매트릭스의 사슬 구조를 조절하여 용융점, 유동성 및 함침성을 제어하는데 성공했다.

개발된 자기강화복합재료는 접착강도, 인장강도 및 충격 저항성이 기존 연구결과 대비 각각 333%, 228%, 2700% 향상된 최고 수준의 기계적 물성을 달성했다.

특히 소형 드론의 프레임 소재로 해당 재료를 적용했을 때 기존 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 대비 52% 가볍고, 비행시간은 27% 증가해 차세대 모빌리티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북대학교 유기소재섬유공학과 이혜성 박사과정(공동 제1저자)은 "박사과정으로서 자기강화복합재료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온 결과가 좋은 논문으로 결실을 맺어 기쁘고, 이러한 연구들이 학술적 및 산업적으로 다양하게 적용되길 희망한다"며 "연구를 지도해 준 지도교수님과 다른 저자들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성륜 지도교수(공동 교신저자)는 "긴 세월 묵묵히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면서 스스로 박사로서 가치를 증명한 이혜성 박사과정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면서 "학술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양대와 인력의 쌍시간 교류가 가능한 새로운 학술연구 플랫폼에 기초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했다는 것과, 산업적으로는 남선산업과 현대자동차와 함께 자기강화복합재료의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했다는 것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함침성(impregnation): 물질이나 기체 등이 다른 물질로 흡수되거나, 침투되거나, 묻혀서 그 안에 흡수되는 것

**4축 압출 공정: 금속, 플라스틱, 나일론 등의 원료를 사용하여 3차원 형상의 복잡한 구조물을 만드는 제조 공정으로, 3축 압출과 달리 회전축이 추가되어 길이, 너비, 높이와 함께 회전축도 제어할 수 있음.

도교육청, 중기제품 구매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해 7,842억원 중 7,069억원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은 중기제품 구매율 85% 이상이고, 중기제품 구매실적 3,000억원 이상이면서 전체 조사대상 기관(856개) 중 구매율 상위 20개 기관에 속해야 한다.

도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총 4조809억원이다.

이중 전북교육청은 17.3%에 해당하는 7,069억원을 구매해 도내 34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4월 900여 명의 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상담회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지역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판로확보가 공공기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제품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창업기업 제품 등의 공공 구매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지역주력산업분야 현장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전주비전대학교(총장직무대행 우병훈)는 '2023년 지역주력산업분야 현장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기업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기업과 대학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공동 특성화과정을 개발해 기업 핵심 인력양성 및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현장전문인력 양성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억여원이다.

사업운영은 기계과 신희재 교수와 산학협력단 김영진 산학협력추진디렉터가 맡았다.

참여학생 1명 당 취업지원금 240만원을 지원하며, 각종 산업수요형 친환경 수소에너지 융복합 교육과정과 현장맞춤형 실무 단기집중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고용 연계 강화 및 성과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언어모델기반 AI 수업활용 가이드 개발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원격교육지원센터는 ChatGPT 등 언어모델기반 AI의 수업활용을 위한 가이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ChatGPT 등 언어모델기반 AI 활용 가이드는 대학 교육현장의 교수 및 학생들의 과의존 또는 오·남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방법과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개발됐다.

특히,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대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슬기롭게 활용해 학습할 수 있는 방법과 교수·학습 방법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개발된 'ChatGPT 등 언어모델기반 AI 활용 가이드'는 ChatGPT를 포함한 언어모델기반 인공지능(AI)에 대한 대학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급변화하는 대학 교육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를 살펴본 A교수는 "수업과정에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ChatGPT의 수업활용에 대한 방향성이 잘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장은지 센터장과 원격교육지원센터 이성주 센터장은 "대학에서 ChatGP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방법과 장단점, 제한사항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면서 "ChatGPT를 교수·학습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학진로탐색캠프 운영대학 선정

전북대 과학경재교육원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손홍찬)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대학진로탐색캠프 운영대학'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진로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선정을 통해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은 소외지역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과체험 및 연구기관 탐방, 대학(원)생 멘토단 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항공·우주·첨단부품소재를 비롯해 SW·AI, ICT, 의·약학 및 간호, 교육, 법학, 그리고 메타버스와 함께 하는 진로체험 등을 7회에 걸쳐 실시한다.

특히 전공 체험 뿐 아니라 대학의 우수한 인·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기관 탐방과 현장 종사자, 전문가 등과의 만남을 통한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해 소외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게 지원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손홍찬 원장은 "지난해 이 캠프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대학이 가진 전문적인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도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8년 설립된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26년째 전북지역 과학영재 교육의 대표기관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장은성기자